

HONG KONG
C H I N A
I N D I A

KOREA

2012
No. 1
essence

5

ABC CERTIFIED
KOREA AUDIT BUREAU OF
CIRCULATIONS

국내 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멤버십 잡지



GUCCI



김홍석,
Untitled(112hours)



다미안 오르테가,
Esquema del mundo: Estratigrafias

김홍석과 다미안 오르테가의 세상을 보는 법

2명의 아티스트가 같은 날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를 시작했다. 한국의 김홍석과 멕시코에서 온 다미안 오르테가. 김홍석의 개인전 <Blue Hours>는 특유의 걸레질로 완성한 회화, 펜을 이용한 벽면 드로잉, 가느다란 붓질을 반복하는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그린 드로잉을 감상할 수 있다. 걸레질 회화 연작은 작가가 색칠한 캔버스 표면을 일용직 노동자가 손걸레로 닦아내다, 작가는 원하는 순간 멈춰 하나밖에 없는 질감으로 완성된다. 예술 활동에서 이뤄지는 노동에 관심을 가져온 작가는 이번에도 관습적이고 일반적인 현대미술 제작 방식, 생산 과정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한다. 다미안 오르테가는 남미 현대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신세대 작가로 국내에서는 이번이 첫 전시다. 지질학에서 영감을 받은 대형 조각 작품을 여럿 만날 수 있는데 콘크리트, 벽돌, 타일을 층층이 쌓아 마치 우리가 밭 덮고 선 지층을 추상화한 듯한 모습이다. 작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의 형성, 환경, 사회적 공간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던지며 그 이면에 담긴 개념에 대해 말해왔다. 이처럼 김홍석과 다미안 오르테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말하며 흔한 대상도 비틀어본다. 각각 국제갤러리 2관, 3관에서 5월 11일까지 열릴 예정. 장르는 확연히 다르지만 비슷한 코드를 읽을 수 있다면 감상하는 재미가 배가될 것이다. 문의 www.kukjegallery.com